

영국 리스펙트의 분당 사태

편집자 주

아래 소론은 세계 급진좌파(사회민주주의 정당 왼쪽의 정치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의 위기 중 가장 최근 사례인 영국 리스펙트 '분당' 사태에 대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당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인 노(老) 혁명가 크리스 하먼이 설명한 글이다.

물론 리스펙트는 자신을 '정당'이 아니라 '단결 연합'(공동전선)으로 규정했으므로 '분당 사태'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동당에서 출당당한 갤러웨이가 보기 좋게 국회의원에 재당선한 2005년 총선 결과를 보고 영국 매스컴이 "반전 정당 리스펙트의 선거 도전 성공"에 대해 보도했고, 유럽의 반신자유주의 "급진좌파 정당들"이 리스펙트를 자기들 중 하나로 꼽곤 하는 데서 보듯이, 좀 덜 엄밀한 용어법으로는 리스펙트를 정당이라고도 한다.

최근 한국판 “급진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대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부터 내홍이 더욱더 심각해져, 어쩌면 ‘리스펙트 혁신파’(이하 ‘혁신파’)처럼 분당론자들이 뛰쳐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분명히 리스펙트 분당 사태에는 한국과는 다른 고유한 영국적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유사한 요소들도 눈에 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주의적 고려에 따른 기회주의적 주장들을 종파적 방식으로 개진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다원성, 포괄성, 광범성” 같은 좋은 가치들의 이름으로 실천은 개인주의적이고 제멋대로 무규율한 것도 닮았다.

위기의 근본 원인도 영국에서처럼(그러나 독일과 달리) 반전·반신자유주의 급진화가 계급투쟁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 좌파당과 달리 리스펙트에는 노동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상당수 합류하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SWP는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동조합 대회도 여는 등 무진애를 썼지만, 총선을 앞두고 갤러웨이는 무슬림 표를 강조하는 대안적 총선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리스펙트의 위기는 단지 영국만이 아닌 국제적 수준(프랑스,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등지)에서 급진정당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노동계급의 선진 대중이 ‘제3의 길’로부터는 단절했지만 사회민주주의 자체로부터는 아직 단절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11월 초 <맞붙>에 실린 리스펙트 위기 관련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은 국제적 관점에서 쓰여진 중요한 글이다. 캘리니코스는 혁명가들과 개량주의자들의 연합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스펙트 분당 사태의 본질은 리스펙트의 미래를 둘러싼 연합

내 좌우파 간 충돌이었다. 우파는 조지 갤러웨이와 살마 야콥이 지도했다. 그들은 선거주의적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무슬림 공동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이제는 아예 그 지역 유지들(기업인들)과도 연계를 맺으려 했다. 영국의 전통적인 인종적 ‘몰표’ 방식에 의존하려 하는 것이다.

좌파의 리더인 SWP는 무슬림의 지지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갤러웨이와 야콥이 만나는 새로운 동맹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걸려 했다. 2006년 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고 주위에서는 리스펙트가 무슬림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SWP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 나아가 리스펙트가 더 넓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갤러웨이와 야콥은 이에 대해 비관적이다. 리스펙트가 반제국주의·반신자유주의 강령을 갖고는 더 광범한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갤러웨이 등은 지난해 리스펙트 지지 노조 대회가 실패적으로, 공연한 자원 낭비였다고 비판했다.

갤러웨이는 지난해 8월부터 SWP를 분열시키려 했다. 갤러웨이를 지지하는 SWP 당원들을 동원해 SWP 내에 논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당을 분열시키려 했다. 그래서 SWP는 두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리스펙트 내에서 갤러웨이와 싸우고 SWP 내에서 그의 지지자들과 싸워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저명한 영화감독 켄 로치와 제4인터내셔널 영국 지부인 ISG(International Socialist Group)가 갤러웨이의 ‘혁신파’에 가세했다. 이 가운데 특히 ISG는 모순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줄곧 스코틀랜드사회당(이하 SSP) 모델을 지향해 온 그들은 그 길에 SWP가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갤러웨이와

손을 잡은 건데, 갤러웨이도 SSP 모델을 지지하지는 않는다.(SSP 모델을 지지하는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전진’ 소속 장석준 동지가 갤러웨이의 ‘혁신파’를 지지하는 글들에 동의하며 번역한 것은 모순된 일로, 반다함께·반SWP 정서가 앞선 면도 있는 듯하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11월 리스펙트 대의원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기존 대의원의 다수가 참석했고 비중 있게 전국공무원노조가 참가해 리스펙트 사수 입장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날 개최된 ‘혁신파’ 대의원대회는 이보다 작았다. 그러나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저명인사들은 다 그쪽에 있다(갤러웨이, 야콥, 켄 로치 등). 또한 다수의 시의원들이 가세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자세히 묘사될 타워햄릿츠 사태가 보여 줬듯이, 갤러웨이와 살마 야콥은 우경화하고 있다. 야콥은 켄 리빙스턴과 가깝고 그 때문에 전에도 린지 저먼의 런던시장 선거 출마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므로 내년 런던시 선거에서 논쟁이 있을 것이다. ‘혁신파’는 리스펙트가 선거에서 실적을 내는 것을 훼방놓으려 할 것이다. 내년 런던시 선거는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리스펙트가 실적을 낼 수도 있건만 불행히도 ‘혁신파’의 방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혁신파’ 지도자들인 갤러웨이와 야콥의 우경화는 그들이 중요한 정치 쟁점을 회피할 뿐 아니라 다루지도 못할 것임을 뜻한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문제와 낙태 문제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내부에 정치적 이질성이 잠복하고 있으므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혁신파’는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파’의 활동가 기반은 소규모 단체인 ISG에 의존하고 있다. 갤러웨이와 야콥이 ISG의 뜻에 쉽게 따라갈 리 없다. ISG보다 훨씬 더 크고 영향력도 더

큰 SWP의 뜻에도 따르지 않은 이들이 ISG의 뜻을 따를 리 없다.

SWP는 리스펙트를 통한 광범한 연합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총리 고든 브라운은 노동당을 회생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지지율은 전임 총리보다 낮다. 그래서 아직도 노동당 좌측의 정치세력들은 함께 좌파적 대안을 건설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적 공동전선을 건설하되, 기회주의자들이 언젠가는 떨어져나갈 수 있음에 대비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보정당 건설은 자유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정당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그 왼쪽에 공백이 형성되고 있는 조건을 전제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조건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가 얻어야 할 다른 중요한 교훈은 변혁 조직 유지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공동전선으로서 민주노동당 건설의 중요성과 함께 ‘다함께’ 건설의 중요성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정간물 발행뿐 아니라 회원 가입과 독자적 행동 등도 잊지 않았다. 변혁 조직 건설에 대한 이 같은 강조가 없다면 민주노동당 위기에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글의 번역은 이수현과 김용욱 동지들이, 용어 통일 등을 포함한 교정·교열은 나와 김하영이 맡았다. 특히 언말 각종 송년회 참가 요청도 외면하고 번역하느라 애쓴 두 동지들의 노고가 컸다.

영국 리스펙트의 분당 사태

- 6 -

영국 리스펙트의 분당 사태

2007년 11월 17일 서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런던의 두 곳에서 각각 집회가 열렸다. 하나는 리스펙트(Respect)의 49개 지역지부와 17개 학생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2백70명을 비롯해 3백60명이 참가한 리스펙트 연례 대의원대회였다. 다른 하나는 리스펙트 대의원대회에 반대하며 열린 '리스펙트 혁신파' 집회였다. 그 집회에는 국회의원 조지 갤러웨이가 소집한 여러 저명인사들과 임기를 마치는 리스펙트 전국위원들, 리스펙트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 일부를 포함해 2백10명이 참가했다.¹

1 '리스펙트 혁신파'는 참석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건물의 소방 안전 규정에 따른 최대 수용 인원이 2백10명이고, 여러 웹사이트에 실린 집회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한 참석자 수도 2백10명이었다.

크리스 하먼

이런 분열은 노동계급 운동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 창립될 때도 같은 날, 같은 도시 파리에서 두 창립 대회가 서로 상대방에 맞서 열렸다. 하나는 독일사회민주당과 폴 라파르그와 질 케드의 프랑스 맑스주의 정당이 개최한 것으로,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엘리너 맑스와 윌리엄 모리스가 그 대회를 지지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개량주의 세력인 "가능주의자들"이 개최하고 헨리 하인드먼의 영국 사회민주연맹이 종파적 이유로 지지한, 그래서 당연히 국제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킨 대회였다. 이 글은 [리스펙트] 분열 이면의 정치를 살펴보고 교훈을 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위기의 분출

리스펙트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조지 갤러웨이는 리스펙트 내의 최대 사회주의 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을 잇따라 비난해서 리스펙트의 위기를 촉진했다. 이것은 SWP의 지도적 당원인 리스펙트 사무총장 존 리즈에 대한 은밀한 공격으로 시작됐다. 또, 갤러웨이는 리스펙트가 2006년 12월 1천 명이 참가한 '투쟁하는 노조 방어' 협의회를 후원하고 '프라이드 런던' 행진(성소수자들(LGBT)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럽 최대의 축제 가운데 하나)에 참가하는 등 자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 7 -

영국 리스펙트의 분당 사태

2007년 10월 중순쯤 갤러웨이의 공격은 더욱 심해져 SWP 전체를 맹공격하기 시작했다. 갤러웨이와 그 지지자들이 여기저기 퍼뜨린 한 문서는 “리스펙트가 SWP 지도부 때문에 완전히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런던 동부의 타워햄리츠 구(區)에서 열린 리스펙트 지부위원회 회의에서 갤러웨이는 SWP가 “레닌주의자들”의 조직이고 그들은 “러시아 인형(뚜껑을 열면 안에서 똑같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으로, SWP가 당원들이 지도부의 꼭두각시일 뿐인 획일적 조직이라는 생각을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 방식으로” 리스펙트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타워햄리츠 지역의 SWP 당원인 폴 맥가와 아이샤 알리는 “러시아 인형들”이고, “몰래 만나 민주집중제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집단의 회원들”이라는 것이었다. 갤러웨이는 더 나아가, “폴과 아이샤는 자신들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주장했을 것이다” 하고 덧붙였다.² 이것은 리스펙트에서 SWP를 몰아내려는 계획적인 노력의 일환이었고, 갤러웨이 지지자들은 10월 29일 더는 존 리즈가 리스펙트의 사무총장이 아니고 전쟁저지연합 소집자인 린지 저먼이 더는 리스펙트의 런던시장 후보가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지난 7월 리스펙트 회원 3백 명이 참가

2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열린 타워햄리츠 지부위원회 긴급 회의 의사록. 매기 폴쇼가 기록함.

한 회의에서 린지 저먼을 런던시장 후보로 선출했는데도 말이다.) 닷새 뒤에 갤러웨이 지지자들은 리스펙트 전국사무소의 자물쇠를 바꿔버리고 상근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11월로 예정된) 리스펙트 대의원대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대회 당일 독자적으로 ‘리스펙트 혁신파’ 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갤러웨이 지지자들은 SWP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들은 SWP가 공작을 벌여 리스펙트 대의원대회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버밍엄에서 “대의원 [선출]을 봉쇄”하고 있고, 타워햄리츠에서 “대표성이 전혀 없는 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질질 끌고 있고, SWP 당원들에게 리스펙트 지역지부의 대의원으로 출마하라고 촉구하는 중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갤러웨이 지지자들은 SWP가 (리스펙트 소속) 타워햄리츠 지방의원 네 명으로 하여금 “리스펙트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단 지도자를 제거하려는 “쿠데타”를 기도하고, 심지어 “자유민주당과 거래를 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리스펙트에서 SWP라는 매우 작은 조직의 지도부와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 분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³

3 앞의 네 주장은 갤러웨이 지지자들이 리스펙트 회원들에게 보

그런 주장들이 틀렸다는 것은 SWP 당원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입증됐다. 예컨대, 노동당 지방의원과 켈 리빙스턴의 고문을 지냈고 2007년 초에 리스펙트에 가입한 쿠마르 무르시드와 타워햄리츠 리스펙트 의장인 글린 로빈스의 증언이 그렇다. 깰러웨이 지지자들이 SWP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은 1950년대 냉전기에 언론이 이른바 공산당원들을 마녀사냥할 때 사용한 표현이나 1960년대와 1980년대에 노동당 우파가 이른바 “당에 침투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비난할 때 사용한 표현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 그들이 SWP를 비난하는 목적은 깰러웨이가 리스펙트를 이끌고 가려는 특정 방향에 대한 반대를 분쇄하려는 것만이 아니었다.(그 방향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4년 전 출범한 리스펙트의 두드러진 우경화를 지향하고 있다.) SWP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좌파의 공동 활동 속에서 보이는 능력을 손상시키려는 것도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런 방법을 깰러웨이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깰러웨이 자신이 전에 언론의 온갖 마녀사냥에 시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이게도 지금 그는 한 공산당 소속 활동가에게 스스로 밝혔듯이 “트로츠키주의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낸 이메일에 나오는 것이고, 뒤의 두 주장은 <이스트 런던 에드버타이저>(런던 동부지역의 지역신문)에 실린 편지 — 타워햄리츠 지방의원단 지도자인 압줄 미아와 깰러웨이의 상근 보좌관인 케빈 오벤든과 룩 호브먼이 서명한 — 에 나오는 내용이다.

있다. 물론 켈 로치나 앨런 쏘넷 같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때는 깰러웨이는 우회적으로 말했다.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유감스럽게도 깰러웨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진지한 활동가들은 SWP의 정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SWP 당원들이 깰러웨이의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SWP는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들과 다양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협력적으로 활동해 온 오랜 전통이 있다. 심지어 현 정부의 선임 장관인 피터 헤인조차 2007년 10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1970년대 말 만나찌동맹(이하 ANL) 안에서 SWP와 협력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SWP를 활동적인 추진력이라고 묘사하면서도 SWP 당원들이 노동당에 헌신적인 사람들과도 협력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오늘날 SWP의 중앙위원들은 전쟁저지연합에서 토니 벤이나 제레미 코빈 같은 노동당원들, 영국공산당원인 앤드류 머레이,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닌 사람들과 함께 지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단결과 정직한 논쟁

우리가 그런 명성을 얻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1920년대 초에 레닌과 레온 트로츠키가 발전시키고 1930년대 초에 나찌의 발흥을 보며 트로츠키가 더한층 정교하게 다

4 앨런 쏘넷은 제4인터내셔널 영국 지부(ISG)의 지도자이다.

들은 공동전선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교묘히 농간을 부려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도출하거나 회의에서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과 정반대 방식이다. 공동전선 방식의 출발은 개혁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노동 대중이 믿든 아니면 그런 야만을 끝장내는 방법은 혁명뿐이라고 우리처럼 생각하든 간에 착취·전쟁·인종차별이 노동 대중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첫째, 특정한 공격이나 참사에 맞선 반격의 성패는 최대한 광범한 단결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혁명적 소수만의 노력으로는 대규모 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혁명가들은 특정 현안에 대해 자신들과 의견이 같은 정치 세력들과 손잡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장기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말이다.

둘째, 그런 쟁점들을 둘러싸고 개혁 신봉자들과 함께 투쟁함으로써 혁명적 소수는 자신의 태도가 옳다는 것을 실천에서 입증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SWP와 그 전신인 국제사회주의자들(IS)은 다른 단체나 개인들과 협력해 온 역사가 있다. 1960년대 말에는 베트남연대운동(Vietnam Solidarity Campaign)에서 그랬고, 197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에

는 ANL에서 그랬고, 1984~85년에는 광부(파업)지지위원회(Miners Support Committee)에서 그랬고, 오늘날은 전쟁저지연합과 '파시즘에 맞서 단결하라'(Unite Against Fascism)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광부노조 지도자 아서 스카길이 언론과 노동당 우파의 악랄한 마녀사냥에 시달릴 때 — 그리고 다른 좌파들이 대부분 그를 옹호하지 않을 때 — 우리가 스카길 방어 운동을 주도한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과거에도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중상·모략이 결코 먹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공작이나 권모술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공격이나 참사에]맞서 싸우려면 다른 세력들에게 함께 투쟁하자고 설득해야 하고, 이치에 맞는 주장을 펴지 못하면 그들 중 일부를 혁명적 사상으로 설득할 수 없다. 여러 공동전선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해 온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우리 정치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단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전선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전선은 소수 혁명가들만의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혁명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상이 다양한 개량주의 사상보다 더 나음을 실천에서 입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전선은 마치

혼자 하는 카드 놀이에서 두 사람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과 흡사하다.

개량주의자이든 혁명가이든 심지어 아나키스트이든 간에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실제로는 조직을 해서 자신의 견해를 전파한다. 때때로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부인하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 한다는 것이다. 리스펙트의 갤러웨이 지지자들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모였든 아니면 인터넷과 전화통화로 연락했던 간에 “몰래 만나” 조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열두 명에서 열아홉 명이 서명한 이메일들을 잇따라 발송하거나 리스펙트 대의원대회에 맞서는 공개 집회를 열 수 없었을 것이다. SWP에 대한 갤러웨이측의 비난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적용돼야 한다.⁵

5 이 점이 특히 사실인 이유는 유럽이슬람포럼(Islamic Forum of Europe)(런던에 본부가 있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 지부가 있는 이슬람주의 단체)의 일부 갤러웨이 동맹 세력들이 방글라데시의 이슬람주의 정당인 자마앗-이-이슬라미(Jamaat-i-Islami)(이하 자마앗)와 연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 독립 전에 창설된 자마앗은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오늘날의 방글라데시]에서 매우 탄탄한 정치·종교 단체로 발전했다. 이 단체는 1969년 방글라데시 독립 운동에 대한 군사적 탄압에 관여했고, 방글라데시 독립 후에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각자 독자적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두 조직 모두 여전히 무력을 사용해 대학교에서 좌파를 쫓아내고 있다. 최근까지 방글라데시의 자마앗은 우파 국민당(National Party)과 함께 연립정부를 이루고 있었고, 파키스탄의 자마앗은 한 주(州)에서 무사라프 지지자들과 함께 연립 주정부를 이루고 있었다.

언제나 우리는 공동전선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정책들을 주장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978년 ANL 창립 당시 우리는 나찌인 국민전선(National Front)과 대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주장을 했다. 처음에 ANL이 만나찌 축제를 훌륭하게 조직했을 때 ANL을 지지했던 몇몇 저명인사들은 나중에 거리에서 나찌를 저지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ANL에서 떨어져 나갔다. SWP가 이 문제를 놓고 영국 전역에서 활동가들과 논쟁하지 않았다면 ANL은 결코 국민전선에 궤멸적 패배를 안겨줄 수 없었을 것이다.

23년 뒤 9·11 공격 직후 전쟁저지연합이 건설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SWP가 주도하고 조지 몽비오, 제레미 코빈, 브루스 켄트(반핵군축운동(CND)의 지도자), 타리크 알리 등이 참가한 집회가 런던 도심에서 열려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이 집회 뒤 열린 첫 조직 회의는 거의 재앙적인 종파적 분쟁으로 얼룩졌다. 다양한 소규모 단체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들을 강요하려 했기 때문이다. SWP가 최소한의 요구들을 중심으로 건설적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덕분에 전쟁저지연합이 건설되고 전진할 수 있었다. 만약 일부 종파적 요구들(이슬람주의와 미국 제국주의를 똑같이 비판해야 한다는 등의)이 실제로 받아들여졌다면 전쟁저지연합은 아예 출범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SWP 당원들은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벌이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주장했다.

SWP 당원들은 결코 “러시아 인형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둘러싸고 자기 단체 안에서 논쟁할 줄 알았기에 영국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를 건설할 수 있었다. 전에 깰러웨이는 SWP의 일처리 능력, 특히 곧 그 자신이 주요 지도자가 된 반전 운동 건설에서 SWP가 보여 준 능력을 칭찬하곤 했다.

리는 사회주의자동맹(이하 SA)을 통해 그런 노력을 했었지만 얼마 안 되는 성공만을 거뒀다. SA는 대체로 기존 좌파 단체들(그 중 일부는 매우 종파적이었고 반전 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만의 연합이었다. [그러나] 전쟁 반대 정서가 워낙 광범했으므로 광범한 선거 공동전선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좌파의 구심체는 혁명적 조직이 돼서는 안 되고 그저 반전 운동의 다양한 세력들을 — 혁명가들뿐 아니라, 노동당에 환멸을 느낀 노동당 좌파 지지자들, 노동조합원들, 급진 무슬림 활동가들, 평화운동가들도 — 끌어들이려 노력해야 했다. 그것은 우리가 혁명 문제에서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 수 있을 때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를 위해 SWP 지도부의 대표자들은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개적이고 솔직한 토론을 했다. 그 즈음 조지 깰러웨이가 노동당에서 축출되자 그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또다시 우리는 공동전선 방식을 따랐다.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 목표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들, 그러나 우리의 동맹 세력이나 많은 반전 운동 참가자들이 보기에는 최대한의 요구들에 동의했다. 그래서 새 조직의 이름이 “리스펙트: 단결 연합”으로 정해졌다. 리스펙트의 입장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순수한 사회주의적 입장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노동당의 대

리스펙트 창립의 정치학

공동전선 방식은 우리가 리스펙트를 건설하는 데도 적용됐다. 반전 운동은 지난 2003년 절정에 달했다. 우리는 30만 명 넘게 참가한 여러 시위뿐 아니라 2003년 2월 15일 무려 2백만 명이나 참가한 시위도 목격했다. 많은 활동가들은 운동의 정치적 표현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이런 일반적 정서에 공감했다. 또, 우리는 노동당 왼쪽에 정치적 구심이 건설되지 못하면 20세기에 거둬들일 수 있는 대중의 환멸이 선거에서 우경화로 표출될 수 있다는 — 그래서 보수당과 최악의 경우에는 나찌가 득을 본다 — 것을 알고 있었다. 좌파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노동당 왼쪽에 믿을 만한 선거 구심을 건설하려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 전에도 우

안으로 모종의 반전·반인종차별·반신자유주의 정치 조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당길 수 없었을 것이다. 리스펙트의 영문 머릿글자가 그 프로젝트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존중(Respect), 평등(Equality), 사회주의(Socialism), 평화(Peace), 환경(Environment), 지역사회(Community), 노동조합(Trade unions)이 그것이다. 사회주의도 그 중 하나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다시 한 번, 리스펙트를 진척시키기 위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고, 그 투쟁에서 SWP는 핵심적 구실을 했다. SWP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2004년 1월 열린 SWP 특별 당대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그 프로젝트나 리스펙트라는 이름에 반대했다. SWP 밖에서도 일부 좌파들이 무슬림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반대했다. 우리는 이슬람도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을 비판해야 했다. 그리고 이슬람이 근본적으로 반동적이라는 주장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좌파는 무슬림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역사적으로 우파 이슬람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같은 단체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⁶ 우리는 이런 견해들을 비판하며 그런 단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이슬람 혐오 반대 투쟁이나 반전 운동에서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원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견해들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직 투쟁 과정에서만 특정 개인들의 인식의 지평이 확대돼 좌경화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어쨌든, 모든 공동전선에서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이는 오직 실천 속에서만 입증될 것이다.⁷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중동과 남아시아의 이른바 세속적 정부들이 가혹한 자본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이슬람 혐오가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 무슬림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⁸

우리는 또, 갤러웨이의 과거 경력 때문에 그와 함께 활동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좌파들과도 논쟁해야 했다. 예컨대, 갤러웨이는 '캠페인 그룹'(Campaign Group)(노동당내 좌파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리스펙트의

6 예컨대, 타리크 알리와 질베르 아슈카르가 그랬다.
7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 주장은 하먼, 2002를 참조.
8 2005년 7월 SWP의 맑시즘 축제와 2006년 12월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런던에서 발행되는 맑스주의 계간지) 토론회에서 나는 질베르 아슈카르와 우호적 논쟁을 하며 그렇게 주장했다.

원이 평균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990년 주민세 폭동 당시 “이 미치광이들, 아나 키스트들, 주로 SWP의 극단주의자들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닌다”며 과거에 SWP를 비난한 적도 있었다.⁹ 그러나 2003년 여름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갈러웨이가 전에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가 또는 그의 봉급 수준이 아니었다. 핵심은 그가 어느 의원보다 많이 반전 운동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노동당에서 축출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에 노동당에 기대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갈러웨이는 부시의 전쟁에 노동당이 동참한 것에 반대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SWP가 응집력 있는 전국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SWP는 리스펙트 창립에 관여한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런 주장들을 펼 수 있었다. 갈러웨이는 이 점에 분명히 동의했기에 존 리즈가 리스펙트 사무총장으로 지명되는 것을 열렬하게 지지했다. 마치 한때 피터 헤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SWP 중앙위원들을 ANL의 전국 조직자들로 받아들였듯이 말이다. 헤인과 갈러웨이 둘 다 “레닌주의” 조직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단결시켜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개인들의 느슨한 모임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9 폴리(Morely), 2007, p201에서 인용.

우리는 4년 넘게 우리의 헌신성을 입증해 보였다. 그래서 2004년 런던 시의회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당시 우리는 리스펙트 출마자 명단이 SWP 당원들보다 훨씬 더 광범하게 구성되도록 애를 썼다. 심지어 리스펙트 활동가들의 다수가 SWP 당원인 지역들에서도 그렇게 했다. 때때로 SWP 당원이 아닌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을 둘러싸고 SWP 안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리스펙트를 진정한 “단결 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견해에 따라 2004년에 우리는 런던 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SWP의 지도적 당원 린지 저먼을 위해서뿐 아니라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한 조지 갈러웨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그 해 여름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버밍엄에서 존 리즈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레스터에서 이본 리들리 — 이슬람으로 개종한 언론인(이후 ‘혁신파’에 참여함) — 를 위해서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SWP 당원들이 가까이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타워햄릿츠에서 노동조합원인 올리우르 라흐만이 31퍼센트의 득표로 구의원에 당선함으로써 리스펙트가 처음으로 선거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오래지 않아 SWP 당원인 폴 먹가가 타워햄릿츠 구의원 재보선에서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는 밀월(Millwall) 동(洞)에서 출마해 27퍼센트를 득표하며 노동당

후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그 때 “러시아 인형들” 운운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05년 총선에서 런던 동부의 타워햄리츠와 뉴엄 구(區)에서 리스펙트의 다양성은 후보들의 다양한 면면에서 드러났다. 네 명의 후보는 린지 저먼, 조지 갤러웨이, 올리우르 라흐만, 압둘 칼리크 미안이었다. SWP 당원들은 모든 후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리스펙트라는 광범한 연합에 대한 헌신성을 보여 주었지만, 특히 조지 갤러웨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고, 결국 갤러웨이는 리스펙트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버밍엄에서 우리 당원들은 살마 야콥[당시 리스펙트 부의장이자 버밍엄 시의원으로, 나중에 갤러웨이와 함께 ‘혁신파’의 주요 리더가 됨]을 위해 매우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¹⁰

그런 양상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됐다. 우리는 인종·성·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리스펙트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애썼다. 버밍엄에서 리스펙트는 무슬림 여성 두 명, 무슬림 남성 한 명, 흑인 여성 한 명, SWP 여성 당원, 이렇게 다섯 명의 후보를 내보냈다. 타워햄리츠와 뉴엄에서 SWP 당원들은 가능하다면 무슬림과 비무슬림 후보를 섞어서 서로 다른 선거구에 출마시키자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리스펙트는 뉴엄에서 23퍼센트를

득표해 세 석을 확보했고, 타워햄리츠에서 23퍼센트를 득표해 열두 석을 확보했고, 버밍엄에서 살마 야콥을 당선시켰다.

좌파의 프로젝트로서 리스펙트를 지키기

그러나, 1970년대 말에 ANL이 그랬고 2001년에 전쟁저지연합이 그랬듯이, 리스펙트도 성공을 거둔 것 때문에 정치적 논쟁에 휩싸였다. 그리고 SWP 당원들은 그런 논쟁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해야 했다. 한 가지 논쟁은 2006년 선거 결과를 둘러싼 것이었다. 리스펙트가 백인 노동계급의 표를 상당히 획득했음에도(그리고 타워햄리츠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리스펙트 후보들이 겨우 2백 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했음에도) 당선한 리스펙트 후보들은 모두 무슬림계 후보들이었다. 리스펙트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들은 이를 이용해 리스펙트가 “무슬림 정당”이라고 악선전을 해댔다.¹¹

리스펙트의 성공에서 비롯한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노동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에게는 아주 익숙하지만 비(非)노동당 좌파에게는 완전히 낯선 문제였다. 기회주의적 선거 정치가 리스펙트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2005년 총선 당시 갤러웨이가 베스널 그린 앤보우[타워햄리츠 지역의 하원 선거구 두 개 중 하나]에서 당

11 이와 달리 테일러, 2005에 실린 인터뷰들은 리스펙트의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10 리스펙트 선거운동의 특징은 테일러(Taylor), 2005 참조.

선할 때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존 리즈가 지적하듯이, “노동당 후보인 우나 킹을 낙선시키기 위한 커다란 동맹”이 존재했다.(우나 킹은 이라크 전쟁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갤러웨이는 자신에게 표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끌어들였고, 좌파와 매우 거리가 먼 개인들과 세력들을 중용했다. 노동당 구의원 굴람 모르투자를 영입했다. … 지역 유지 삼수딘 아흐메드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를 리스펙트 부의장 자리에 앉혔다. 지역의 백만장자 레스토랑 주인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즈말 후세인이 타워햄리츠 리스펙트의 핵심 인사가 됐다. 유럽이슬람포럼의 청년 회원인 압줄 미아가 선거운동 “사령관”으로 떠받들어졌다. 백만장자 건축업자인 모하메드 자바드네를 당선 축하 행사에 초청해 연설하게 했고 1주일 뒤 첫 비공식 당선 축하 친교 파티를 조직하게 했다.¹²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위협한 사태 전개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비(非)좌파 침투자들에 맞서 투쟁했다. 대체로 좌파가 승리했다. 모르투자는 타워햄리츠 리스펙트 “의장”이 되려는 노력이 좌파에 의해 봉쇄되자 갤러웨이

를 배신하고 리스펙트를 떠나 노동당으로 되돌아갔다. 삼수딘 아흐메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거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리스펙트를 떠나 자유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모하메드 자바드네는 곧 좌파 정치에 싫증을 내고 리스펙트에서 떨어져 나갔다. 리스펙트를 정치적 출세 도구로만 여긴 사람들에 맞서 사회주의자들이 가까이 논쟁한 것은 정당했다. 그러나 2년 뒤 갤러웨이는 이를 꼬투리 삼아 넉시시 SWP를 비난한 것이다.¹³

리스펙트를 위협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압력이 끊이지 않았다. 인종과 종교가 뒤섞인 도심 지역에서 노동당이 사용하는 정치 모델이 있다. 특정 인종·종교 집단의 “지역사회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동당에 표를 몰아주는 사람들에게 모종의 특혜를 약속하는 것이다. 타워햄리츠에서 활동하는 SWP 당원이자 리스펙트 활동가인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동당은 선거 때 “그들의” 표를 노동당에 몰아줄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협약을 맺고 그들에게 약속함으로써 지방정부를 계속 장악할 수 있었다. 때때로 이 과정은 지역 주민들(유대

13 갤러웨이는 “최고의 시절, 최악의 시절”(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이라는 글에서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리스펙트의 한 회의에서 “긴장”이 조성된 것에 대해 불평했는데, 그 문서가 리스펙트의 위기를 촉발하는 구실을 했다.

12 존 리즈, “리스펙트의 위기를 해부한다”(Respect: Anatomy of a Crisis), SWP 당대회 자료집 3권(2007년 12월). [인터넷상에 떠 있다.]

인, 아일랜드인, 특히 항만 주변의 가톨릭계 아일랜드인 등)을 반영하는 단체들, 종교 기관들, 개인들을 통해 조정됐다. 물론 이런 전통은 원칙 있는 정치를 기껏해야 기회주의로 대체하기 십상이었다. … 방글라데시인들이 런던 동부에 정착하면서 이 오랜 개량주의 전통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뀌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당의 핵심 사업 방식이 됐다.¹⁴

이것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태머니 홀(Tammany Hall)(17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뉴욕의 시정을 지배하며 보스 정치와 독직(瀆職)의 대명사가 된 민주당 파벌 기구) 정치라고 알려진 것이다. 또, 인도에서는 친자본주의 정당들의 관행인 “물표”(vote bloc)(특정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물지마 투표’ 성향을 드러내는 ‘표밭’) 또는 “종단적” 정치가 그와 비슷하다. 좌파는 항상 그런 정치 관행에 반대했다. 그러나 타워햄리츠에서 바로 그런 정치 관행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후보 선정 회의에서 … 우리가 끊임없이 들은 말은 가장 유력한 선거구에 “강력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14 SWP 당대회 자료집 2권(2007년 11월)에 실린 손 도허티(Shaun Doherty), 폴 맥가(Paul McGarr), 존 맥롤린(John McLoughlin)의 글. [인터넷상에 떠 있다.]

그 지역에서 지위가 있는 방글라데시 남성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종의 암호명 비슷한 것이었다.[타워햄리츠 주민의 51퍼센트가 백인이고, 33퍼센트가 방글라데시인이다.] 물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노동당이 특정 인종·종교 집단과 표를 거래해 온 관계를 경험한 그 지역에서 방글라데시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리스펙트 연합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는 후보들을 많이 출마시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 선정 회의의 전원 합의에 따른 추대를 위해 우리는 사실상 일부 선거구에서 방글라데시인 남성 세 명 — 선거구마다 의원을 세 명씩 선출했다 — 을 후보로 내세우는 데 합의했다.(아즈말 후세인과 압줄 미아 같은 사람들의 강력한 촉구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타워햄리츠에서 우리의 기반이 가장 강력한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화이트채플 동에서 존 리즈 외에 방글라데시 여성이 출마해야 한다고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주장했다. … 합의된 후보 명단이 회원들의 회의에 제출됐을 때 우리의 모든 타협에도 불구하고 압줄은 존(존 리즈)이 화이트채플에서 출마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해, 우리는 비록 표결에서 이겼어도 후보 선정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입장에서 전술적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당선한 리스펙트 의원 두 명은 리스펙트의 정

치적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나중에 드러났다.

한 명은 리스펙트를 탈퇴해 노동당으로 갔고, 다른 한 명은 사퇴했다. 둘 다 자신의 개인적 야망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모욕으로 여겼다. 둘 다 자신의 선거구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방글라데시 남성이었다. 한 명은 화이트채플에서 존 리즈를 대신해 리스펙트 후보가 된 사람이었다. 다른 한 명은 사실, 압줄과 아즈말이 새드웰 동(洞)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이라며 고른 사람이었다.¹⁵

2007년 버밍엄 시의회 선거 전에도 논쟁이 벌어졌다. 살마 야콥이 지지한 후보는 3개월 전까지도 보수당 당원이었다. 그는 이웃 선거구에서 리스펙트 후보에 맞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었다. 그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에 SWP 당원인 헬렌 샬먼이 반대하자 살마 야콥은 헬렌 샬먼이 “아시아계 후보들을 꺼린다”고 말했다.¹⁶ 그 뒤 인종·종교가 복잡한 킹스 히스 선거구의 후보 선정 회의가 있었다. 그 전에 살마 야콥은 헬렌 샬먼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후보 선정 회의의 1주일 전에 킹스 히스 선거구에서 약 50명이 리스펙

15 SWP 당대회 자료집 2권(2007년 11월)에 실린 손 도허티(Shaun Doherty), 폴 맥가(Paul McGarr), 존 맥롤린(John McLoughlin)의 글.

16 SWP 당대회 자료집 2권(2007년 11월)에 실린 헬렌 샬먼(Helen Salmon), 피트 잭슨(Pete Jackson) 등의 글

트 당원으로 대거 가입했다.(당시 버밍엄 남부 지역 전체의 리스펙트 진성 당원은 겨우 70명에 불과했다.) 마지막 순간에 헬렌 샬먼의 경쟁 후보로 아시아계 취업상담사 한 명이 추천됐고, 그가 결국 30표 대 20표로 승리해 후보가 됐다. 버밍엄에서 벌어진 논쟁의 전반적 결과는 2007년 리스펙트 후보명단의 성격이 1년 전에 비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버밍엄의 리스펙트 후보들은 죄다 파키스탄계 남성이었다.

버밍엄의 힌두교도, 시크교도,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출신자들, 백인뿐 아니라 무슬림도 포함해서 많은 주민들의 전형적인 반응은 분명히 파키스탄 태생 SWP 당원의 언니가 보인 반응과 같았을 것이다. 그 여성은 전에는 리스펙트에 투표했지만 이제 리스펙트가 “종단주의 정당”이 돼버렸으니 앞으로는 리스펙트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¹⁷ 다른 정당들 중 하나도 그런 비방을 했는데, 사태 전개 자체가 그런 비방이 옳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었다. 원칙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사태 전개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야만 했다. 그런 사태 전개는 리스펙트의 일부가 창립 당시 합의된 최소한의 원칙에서 근본적으로 멀어졌음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는 이제 당선 가능성을 다른 모든 원칙보다 중시하겠다는 것이고, 리스펙트의 우경화를 부추기기만 할

17 탈라트 아흐메드(파키스탄 태생 영국 거주 사회주의자)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것이다. 그래서 <소셜리스트 워커>는 버밍엄에서 일어난 일을 비판하는 짧은 기사를 실었고, 1주일 뒤 살마 야콥이 반박 편지를 보내 왔다.

타워햄리츠의 사태 전개도 원칙 있는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2006년 여름에 노동당의 나쁜 전통 또 하나가 리스펙트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머니 당원들”(pocket members) — 당내 개인에게 매수되고 조종당하는 당원들 — 을 이용해 당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전에 노동당 좌파 지방의원이었던 쿠마르 무르시드는 이런 관행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내가 노동당을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당의 고질적인 정치적 분열과 “주머니 당원” 문화였다. 직책을 결정하거나 사람을 임명하는 정치적 회의에 참석시키려고 주머니 당원을 50명 또는 1백 명씩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지지 기반은 전혀 없지만, 권력은 쥐고 있다. 그리고 정치는 창문 밖으로 내팽개쳐진다.¹⁸

볼윈더 라나는 런던 서부의 사우스홀에서 노동당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선거가 다가오면, 그들은

18 <소셜리스트 워커> 2007년 11월 17일치에 실린 인터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당원들의 당비를 내주고 그들의 당원증을 모은다.”¹⁹ 그런데 타워햄리츠 리스펙트 회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방법이 사용됐다. 한 부자 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서 수십 장과 몽칫돈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실업자를 위한 회비 할인 혜택을 이용해 수십 명을 가입시키고, 타워햄리츠의 리스펙트 지방의원단 지도자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그들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선출된 리스펙트 의원단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리스펙트 최초의 지방의원인 노동조합원 올리우르 라흐만과 여성 의원 두 명 등 네 명의 지방의원이 리스펙트 의원단 다수의 우파적 입장에 반대하고, 다수파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리스펙트의 입장을 선전·선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반대파 지방의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SWP 당원이 아니었다. 오래지 않아 두 명이 SWP에 가입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런 문제는 새드웰 동(洞)에서 당선했던 리스펙트 의원 한 명이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실시된 2007년 늦여름에 더 첨예해졌다. 리스펙트 후보 선정 회의는 젊은 여성 술타나 베굽이 중년 남성 하룬 미아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SWP 당원들과 네 명의 좌파 지방의원들은 술타나 베굽이 리스펙트의 투쟁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후보라고 판단했다. 술타나 베굽을 지지한 것이 갤러웨이가 말

19 리스펙트 협의회에서 한 Balwinder Rana의 연설.

하는 이른바 SWP의 “범죄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SWP 당원들은 후보 선정 회의의 표결에서 패배한 뒤 리스펙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고, 그래서 당선한 후보가 SWP 당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마도 우리의 진정한 “범죄”는 우리의 정치를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주장하고, 갤러웨이 파(派)의 “러시아 인형들”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일 게다.

갤러웨이의 수수께끼 같은 태도 변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갤러웨이가 그토록 갑자기 SWP에 반대하게 됐는지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갤러웨이의 진정한 동기를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분명하다. 그는 의원 당선 직후 미국 상원을 방문해서 전 세계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라크 전쟁을 비난하는 용감한 행동을 했다. 그러나 그 뒤 갤러웨이는 “천대받는 민중의 호민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타워햄리츠 지역구 활동의 많은 부분을 유급 보좌관들에게 내맡긴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7년 초, 갤러웨이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리스펙트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갤러웨이는 몇 주간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천박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빅 브라더

>(Celebrity Big Brother)에 출연했다. 리스펙트의 적극적 지지자들은 우파들의 조롱에 시달려야 했고,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다시는 리스펙트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SWP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다. 켄 로치나 살마 야콥 같은 저명한 리스펙트 회원들이 갤러웨이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에 SWP는 당시 큰 압력을 받았다. 다행히도, <빅 브라더> 방영 시작이 우리 연례 협의회 일정과 겹쳤던지라 “러시아 인형들”의 “레닌주의” 조직인 우리는 대체적인 대응 방식에 합의할 수 있었고, SWP 당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 수 있었다. 우리는 <빅 브라더>에 출연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갤러웨이를 당선시킨 사람들에게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우리는 리스펙트 지도부 회의와 <소셜리스트 워커> 신문 지면에서 갤러웨이를 방어했고, 존 리즈 등은 그를 방어하는 성명서를 텔레비전에서 발표했다. 물론 갤러웨이는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SWP가 갤러웨이를 방어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때 리스펙트는 분열했을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빅 브라더> 소동이 그 해 5월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갤러웨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빅 브라더> 소동이

일어난 지 몇 달 뒤에 갤러웨이는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경력을 쌓고 이런저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2007년 6월에는 <빅 브라더스 빅 마우스>에 보조 사회자로 출연했는데, 특히 <빅 브라더스 빅 마우스> 출연은 리스펙트 지지자들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두 달 뒤에 황당하게도 갤러웨이는 SWP가 리스펙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한편, 갤러웨이는 윌리엄 헤이그, 데이비드 블런킷, 앤 위드쿰 같은 전직 장관들과 보수당 출신 칼럼니스트이자 런던시장 후보였던 보리스 존슨에 이어 다섯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의원으로 꼽히는 인기 힘든 기록을 남겼다. 참으로 대단한 “민중의 호민관”이다!

2006년 대부분 기간과 2007년 상반기에 갤러웨이는 대중매체에서 경력을 쌓는 데 집중하면서도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옛 재능을 간간히 보여 줬다. 갤러웨이는 여전히 좌파 진영의 자산이었고 — 비록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었지만 — SWP도 그렇게 대했다. 우리는 선거를 겨냥한 기회주의 방향으로 리스펙트를 이끌려는 자들을 비판한 것 때문에 갤러웨이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갤러웨이가 리스펙트 연단에서 연설하도록 배려했고 — 그가 방송 출연 때문에 연설할 수 없는 때도 있었지만 — 또 다른 마녀사냥으로부터 그를 방어했다.

8월 중순에 갤러웨이가 갑자기 문서를 발표해 [SWP 중앙

위원이자 리스펙트 사무총장인 존 리즈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약간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격이 SWP를 겨냥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문서가 발표된 시점은 뜻밖에도 노동당이 4~5주 뒤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전에 갤러웨이는 다시 베스널 그린 앤 보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타워햄리츠의 다른 선거구(포플라 앤 캐닝 타운)에서 출마하는 데 의욕을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표를 얻어야 했다. 그래서 갤러웨이의 문서는 부분적으로 선거와 관계된 주장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리스펙트는 일링 앤 사우스홀(런던 서부의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었다. 조금이라도 정치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점(선거 공고 후 겨우 2주 반 만에 선거가 실시됐다), 새 총리 취임 직후의 일시적인 “브라운 바운스”(Brown bounce: 고든 브라운이 새 총리로 취임하면서 노동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 부족한 지역 기반 등이 결합돼 그런 결과가 나왔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갤러웨이는 그 결과를 타워햄리츠의 새드웰 동(洞) 재보선 승리와 비교한 후, 버밍엄과 타워햄리츠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방법을 따라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급의식이나 반전 정서에 호소해서는 노동자들의 표를 얻을 수 없으니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그러나 5월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SWP 당원인 마이클 라발렛(Michael Lavallette)과 레이 홈스(Ray Holmes)가 당선했다.) SWP는 그런 전환에 반대했고, 따라서 갤러웨이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비점

SWP에 대한 공격은 갤러웨이와 그의 동맹인 압줄 미아가 리스펙트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곳인 타워햄릿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리스펙트 연례 대의원대회에 보낼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의가 10월 중순에 열렸는데, 매우 날카로운 논쟁이 있었다. ‘주머니 당원들’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활동가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수십 명이 참가한 것이다. 쿠마르 무르시드는 당시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자 갤러웨이 지지자인 아즈말 후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 동료들이 어제 회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왜 회의에 왔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치 쟁점들 대신에 자리나 권력 획득에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 쟁점들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펙트 규약을 보면, 회의 전에 대의원 입후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시 회의 전에 46명이 입후보 신청을 했으므로 몇몇 대의원 자리는 공석이 될 터였다. 회의에 참석한 SWP 당원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 케빈 오벤든(갤러웨이의 유급 보좌관)이 손으로 쓴 두번째 리스트를 가져왔다. 거기에는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대의원 출마 의향을 묻지도 않은 사람들, 오직 한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갤러웨이 사무실”에서 출마 권유를 받은 뉴엄 리스펙트 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의장인 아즈말 후세인이 타협안을 내놓지 않자 회의는 곧 난맥상을 보였고, 의장과 일부 사람들이 퇴장했다. 타워햄릿츠 리스펙트 서기인 재키 터너가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 구실을 대신했고, 원래 입후보자들이 승인됐다. 또, 두번째 리스트를 제출한 사람들과 빈 대의원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²⁰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지 갤러웨이는 SWP가 대의원대회에 나갈 대의원들을 장악하려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회의를 “조직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비난하는 이메일

20 SWP 당대회 자료집 2권(2007년 11월)에 실린 손 도허티(Shaun Doherty), 폴 맥가(Paul McGarr), 존 맥롤린(John McLoughlin)의 글.

에 서명했다.²¹ SWP와 좌파 지방의원들이 해명하자 갤러웨이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 인형들이 참석한 타워햄리츠 회의에서 갤러웨이는 SWP 당원들에게(그 중에는 2005년에 그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사람도 있었다) “꺼져” 하고 말했다. 일부 갤러웨이 지지자들은 SWP를 리스펙트에서 몰아내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그 다음 주 타워햄리츠 회의에서 그렇게 하려 했다. 그러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의장인 아즈말 후세인은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이 내놓은 안건에 대한 반대나 기권 의사를 묻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 했다.

이 회의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갤러웨이 지지자들이 리스펙트 여성 회원들에게 보여 준 태도에서 드러난다. 최연소 지방의원인 25살의 라니아 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날 밤 50여 명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 회원증이 있었지만 아무도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었다.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 여성들은 꼬마 애들과 함께 밖에서 떨어야 했다. 리스펙트 지방의원단 지도자들과 가까운 한 사람은 밖에 줄 서 있는 여성들에게 “내 아내는 안 왔는데, 당신들은 왜 왔소?” 하고 물었다.²²

21 아즈말 후세인, 조지 갤러웨이 등이 타워햄리츠 리스펙트 회원들에게 보낸 2007년 10월 16일치 편지.

22 라니아 칸과 인터뷰, 2007년 11월 17일.

리스펙트 회원, 특히 여성 회원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루프타 베굼은 리스펙트 지방의원단 지도자 압줄 미아가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²³ 폴 먹가는 “젊은 무슬림 여성 일부는 거둬거둬 모욕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먹가는 이것이 특별히 무슬림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그는 40여 년 전 자신이 살던 탄광 마을에서 노동당 간부들이 여성들을 그렇게 다뤘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좌파가 항상 그런 행동에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이 때까지 SWP는 리스펙트의 분열이 공식화하지 않도록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우리의 유일한 전제조건은 원칙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리스펙트의 민주적 틀 내에서 기회주의와 태머니 홀식(武) 종단주의에 맞서 논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타워햄리츠에서 갤러웨이와 그 지지자들의 행동이 보여 준 것은 문제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리스펙트의 창립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SWP와 좌파 활동가들이 단호히 투쟁하는 것뿐이었다. 좌파 지방의원들은 너무 화가 나서 타워햄리츠 리스펙트 지방의원단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루프타 베굼은 “그때 존 리즈는 우리에게 의원단을 탈퇴하지 말라고 권유했지만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23 리스펙트 협의회 발언.

말했다.²⁴

갤러웨이 지지자들의 주장과 달리, 의원단에서 탈퇴하는 것이 리스펙트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국 정치에서는 선출된 대표들이 “의원단을 탈퇴”(즉,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단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 것)하더라도 소속 정당을 떠나지 않는 오랜 전통이 있다.

SWP 내부 토론

갤러웨이와 그의 지지자들은 SWP를 폐쇄적인 “레닌주의” 조직으로 묘사했다. 중앙의 소수 지도자가 당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당원들은 다른 회의들에 참석해 농간을 부리도록 강요받는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SWP는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다. SWP가 8월에 공격받은 이후 대응한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갤러웨이의 공격이 매우 심각함이 확실해지자 우리는 모든 런던 당원들에게 갤러웨이의 첫번째 문서와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공개했다. 경험 많은 당원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2006년 당 대회에서 임기를 마치는 중앙위원회가 제안한 새 중앙위원 명단을 거부하고 대안적 명단을 내놓은 사람이었다. 중앙위원들의 사태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발언하면서 개방적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24 리스펙트 협의회 발언

야유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위협이 있을 수 없었다. 그 뒤 각 지회 별로 회의가 열렸고, 다시 전국 대의원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도 지도부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발언할 수 있었고,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세 명도 참관인으로 초청받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대의원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당 지도부의 대(對) 갤러웨이 대응 방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2백 명의 대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단 두 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이 기권했다. 회의에서 서로 대립한 두 입장이 모두 당 내부 회보에 수록됐다. 리스펙트 내에서 나오는 주장은 모두 SWP 당원들에게 회람됐다. 지역 총회들이 잇달아 열렸고, 다시 한 번 전국 대의원 회의가 열려, 참석자 2백50명 중 반대 2표와 극소수의 기권표를 제외한 압도 다수가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문서를 승인했다.²⁵

이 불행한 사건에서 특히 슬픈 것은 세 명의 SWP 당원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당에 자신의 이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었고, 런던 당원 회의, 내부 회보, 첫 전국 대의원 회의에서 그럴 수 있었다. 그 중 둘은 고참 당원이었고, 갤러웨이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들은 SWP 전국 대의원 회의의 지배적 의견을 무시하고 갤러웨이 편을 들었을 뿐 아니라, 갤러웨이가

25 지금 이 글도 그 문서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다만, SWP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풀어 쓰고 전국 대의원 회의 이후의 상황을 추가했다. 원래 문서는 SWP 웹사이트 (www.swp.org.uk)에서 볼 수 있다.

타워햄리츠의 SWP와 다른 좌파 지방의원들을 공격하는 것을 도왔다.²⁶ 옛 밀리턴트 그룹 출신인 세번째 당원은 리스펙트 전국 조직자 선거에 입후보하지 말라는 SWP 중앙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선거에 나섰다. 우리는 세 명을 SWP에서 출당시킬 수밖에 없었다. 두번째 SWP 전국 대의원 회의가 이 결정을 비준했다.

SWP 회의와 토론 기록을 읽은 사람이라면 SWP의 “레닌주의” 또는 “트로츠키주의”가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계급 운동, 반전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서 활동하는 SWP 당원 수천 명은 서로 다른 주장을 접하고 꼼꼼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깰러웨이와 리스펙트의 창립 가치들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 경력을 위한 수단으로 리스펙트를 변질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압도 다수가 자신들이 깰러웨이를 위한 “러시아 인형”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SWP는 토론을 통해 리스펙트를 계속 창립 정신 — 반전 운동에 참가한 다양한 세력들을 반영하는 좌파 구심체 구실을 한다는 — 에 따라 발전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26 SWP에 대한 깰러웨이의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자 우리는 이 세 당원이 깰러웨이를 위해 계속 일하는 것은 다른 SWP 당원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임 권고를 무시하고 리스펙트 전국위원회와 타워햄리츠 지역 회의에서 깰러웨이 편을 들었다. SWP 중앙위원회가 출당 결정을 내린 뒤에, 그들은 당의 분재조정위원회에 항소하라는 권유를 거부했다. 그들이 SWP와 선을 긋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다.

리스펙트의 선출된 대표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리스펙트 회원들이 기회주의에 도전할 수 없게 하고, 리스펙트 내 최대 사회주의 단체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깰러웨이와 그 동료들의 기도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서 리스펙트 연례 대의원대회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의 대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야 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을 정했을 때 깰러웨이 지지자들은 리스펙트 대의원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같은 날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깰러웨이측의 집회는 발언 내용이 대부분 SWP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결과와 전망

리스펙트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우경화에 맞서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려는 유일한 움직임이 아니다. 스코틀랜드사회당(이하 SSP), 브라질의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덴마크의 적녹(赤綠)동맹,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독일의 링케(Linke: 좌파),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반신자유주의 단일 대선후보를 내세우려던 노력,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등이 모두 그런 사례들이다. 리스펙트뿐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주요 지도자들의 행동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지도자들은 중도좌파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했었다가 신속하게, 전에 자기들이 반대했던 정책

을 펴는 중도좌파 정부에 참여했다.²⁷ SSP 지도부의 다수는 SSP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인 토미 세리던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²⁸ 포르투갈의 좌파블록도 좌파블록의 지지 덕분에 리스본 지방의회에 진출한 독립 사회주의자 주제 상 페르난데스(José Sá Fernandes)가 사회당과 협약을 맺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 덴마크의 적녹동맹도 2007년 11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한 명으로 젊은 무슬림 여성을 선택한 것을 언론들이 공격하자 마비 상태에 빠졌다. 독일의 링케 안에도 일부 동독 회원들이 지방 차원에서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세운 것을 놓고 긴장이 존재한다. 프랑스에서 반신자유주의 단일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려던 시도 —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이하 LCR)의 회원 중 거의 절반이 지지한 — 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프랑스 공산당(이하 PCF)은 자신의 후보가 운동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고, ‘[반신자유주의] 단일 후보’를 자처한 조제 보베는 나중에 사회당 우파 후보 세골렌느 루아얄의 ‘식량 주권’ 문제 고문이 됐다.

이것은 좌파의 구심을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잘못됐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당을 비롯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개혁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바람에 그들의 왼쪽에 큰 공백이 생

27 트루델(Trudell), 2007

28 곤살레스(Gonzalez), 2006.

겼고, 혁명적 좌파가 그것을 메우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혁명적 좌파보다 광범한 좌파 세력들이 공동전선을 통해 조직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공동전선이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저명한 비혁명적 정치인이나 노동조합 지도자 등이 참가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단체의 방향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불거지는 것을 무한정 피할 수는 없다. 혁명의 길이 아니라 개혁의 길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특정 정부가 특정 시점에 내놓는 정책들에 매우 강력하고 굳건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량주의적 해결책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 원칙을 버리고 기존 사회 체제 내에서 출세하려는 기회주의적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갤러웨이는 개량주의에 대한 믿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곤 했다. 그는 “존 스미스가 살아 있었다면 노동당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²⁹ 갤러웨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찰의 범죄 해결 능력에 대한 기묘한 믿음을 피력했고, 영국 국가의 단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언하곤 했다. 갤러웨이는 노동당이 영국 국가의 단결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³⁰

29 갤러웨이는 콜린 바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존 스미스는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지도자가 되기 전인 1990년대 초에 닐 키녹의 뒤를 이어 노동당 지도자가 됐(으나 1994년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30 2007년 10월 25일, BBC1 텔레비전의 방송 프로그램 “질문 시간”(Question Time)에서. 조지 갤러웨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그런 견해들을 갖고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서 깰러웨이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라면 거부해야 마땅한 기회주의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컸다. 프랑스의 조제 보베, 포르투갈의 상페르난데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의 지도자 파우스토 베르티노티의 행동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링케의 가장 저명한 지도자인 오스카 라퐁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사들과 정치적 공동전선을 건설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할수록 혁명적 세력뿐 아니라 개량주의 세력도 고무되고 자신감이 증대한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리 되면 이들은 고유의 개량주의적 방식을 택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납게 공격할 가능성도 커진다.

3년 전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쓴 글에서 나는 같은 점을 지적했다. “기존 개량주의 정당에서 떨어져나온 선거 대안에는 기존 정부의 정책들에 반대하지만 의회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활동가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³¹ 결국 “힘든 상황이 오면 정치적 배경이 주류 개량주의인 활동가들은 의회 정치 동맹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는다.” 혁명가들은 “개량주의적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대안을 건설하려 해 봐

있다.

31 하먼, 2004.

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숨기지 말아야 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간행물, 모임, 주장 등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써야 한다.”

3년 전에 글을 쓸 때는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나 뉴질랜드 연합당처럼 정부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 기회주의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저명인사들은 더 작은 유혹 앞에서도 자신이 공언한 원칙을 저버렸다. 우리는 SSP, 프랑스의 장-마리 뷔페(PCF 지도자)와 조제 보베, 깰러웨이의 사례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공동전선이라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정치적 공동전선은 자신의 전통적 지지자들을 배신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중요한 통로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정치 지형은 제한된 특정 기간에만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적 공동전선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순간에도 어떤 세력은 그것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또 뜻하는 바는 좌파 중심체가 독자적 정치 세력들과 전통들 — 일부는 혁명적이고 일부는 개량주의적인 — 의 느슨한 연합 속에서 단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정책들을 둘러싸고 단결하는 “광범한 당”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다. 개량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모든 정치

적 목표에 동의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서로 속이고 농간을 부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노동계급이 하는 구실에 대한 프랑스 LCR의 견해는 보베나 뷔페의 견해와 다르다. 조지 갈러웨이와 타워햄리츠·버밍엄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일관된 혁명가들인 우리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주류 정당들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해서 사회 변화 방법에 대한 계획에도 합의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이런 주장들은 중요한 일상 활동 형태에도 적용된다. 영국에서 리스펙트를 지지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조합 통제 법률 반대 문제에서는 혁명가들과 견해가 같다. 그러나 특정 노동자 집단에게 파업을 회피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비공인 파업을 벌이라고 촉구하는 것에는 당연히 그들도 반대할 것이다. 독일에서 링케를 지지하는 노조 지도자들은 링케의 일부 지부들이 독립 기관사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혁명가들이 극소수인 곳에서는 공동 행동을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좌파 개량주의가 득세하는 훨씬 더 큰 조직 안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선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세력과 개량주의 세력이 엇비슷한 곳에서 혁명가들은 정치적 공동전선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

서도 독자적으로 주장하고 선동해야 한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가 하나 있다. 자신의 주장을 개량주의 동맹 세력들과 공유하는 주장에 국한하지 않는 혁명적 언론이 필요하다. 그런 언론이 있어야만 혁명가들은 일관된 맑스주의 세계관을 제공할 수 있고 각각의 구체적 당면 투쟁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교훈들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이다. 혁명가를 자처하면서도 ‘리스펙트 혁신파’에 가담한 수십 명(제4인터내셔널 영국 지부인 ISG를 가리킴)은 이런 교훈을 어렵사리 깨우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쟁점에 대해 말하기를 회피해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조직(‘혁신파’) 내의 다른 세력을 당황하게 만들 말을 해야 하거나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갈러웨이의 선정적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나 범죄 등의 쟁점에 대한 그의 견해를 그의 평범한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를 무시하는 그와 날마다 부딪힐 것이다. 그들은 또, 주로 개인적 출세에 관심이 쏠려 있는 타워햄리츠 지방의 원들과도 부딪힐 것이다. 또, 그들은 무슬림 노동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못 본 척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부딪힐 것이다. 그들은 또, 과거에 종단주의 카드를 이용하려 했고 앞으로도 그러려는 사람들(물론 이들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만)과도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원칙이 승리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리스펙트 자체는 일관된 좌파 구심체를 건설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물론 분열 뒤에 이것은 더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더 넓은 정치적 상황전개 덕분에 중기적으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공산이 크다. 부분적으로 리스펙트의 위기는 대중의 거대한 반전 정서와 산업 노동자 투쟁의 고양이가 조용하지 않은 데서, 그래서 노조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동당을 지탱하는 데서 비롯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급격하게 악화한 것은 단기적 선거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지난 여름 “브라운 바운스”(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지만)를 보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이 부시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과 이란 위협을 충실하게 지지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임금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려 하고 블레어의 교육·의료 서비스 정책도 지속하는 등 본색을 드러내면서 노동당은 이제 다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갤러웨이 일파가 리스펙트에서 떨어져나간 것은 노동당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에게 좌파적 구심을 제공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운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발 때문에 리스펙트는 위기 극복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용 문헌

Gonzalez, Mike, 2006, “The Split in the Scottish Socialist Party”, *International Socialism* 112 (autumn 2006), www.isj.org.uk/index.php4?id=247

Harman, Chris, 2002, *The Prophet and the Proletariat*, second edition (Bookmarks).[국역: 《이슬람주의, 계급 그리고 혁명》, 다함께]

Harman, Chris, 2004, “Spontaneity, Strategy and Politics”, *International Socialism* 104 (autumn 2004), www.isj.org.uk/index.php4?id=12

Morley, David, 2007, *Gorgeous George: The Life and Adventures of George Galloway* (Politico’s).

Taylor, Ian, 2005, “Respect: the view from below”, *International Socialism* 108 (autumn 2005), www.isj.org.uk/index.php4?id=137

Trudell, Megan, 2007, “Rifondazione Votes for War”, *International Socialism* 113, (winter 2007), www.isj.org.uk/index.php4?id=284